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이 글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베트남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다루고 있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전시상황과 견주 할 정도로 빠르고 강력한 봉쇄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고, 전국민의 동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 분석한다. 메타포, 과학저널리즘, 애국을 위한 사회적 격리와 감시는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물론 봉쇄와 격리가 가져온 정치경제적 결과도 분명하다.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돋보였지만,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실업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봉쇄조치가 한국인 격리 사건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적인 외교문제로까지 커지기도 만들면서 베트남 내 중요한 경제외교국인 한국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될 뻔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는 베트남 내 한국기업, 교민의 노력으로 일부 해소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이슈를 통해 한국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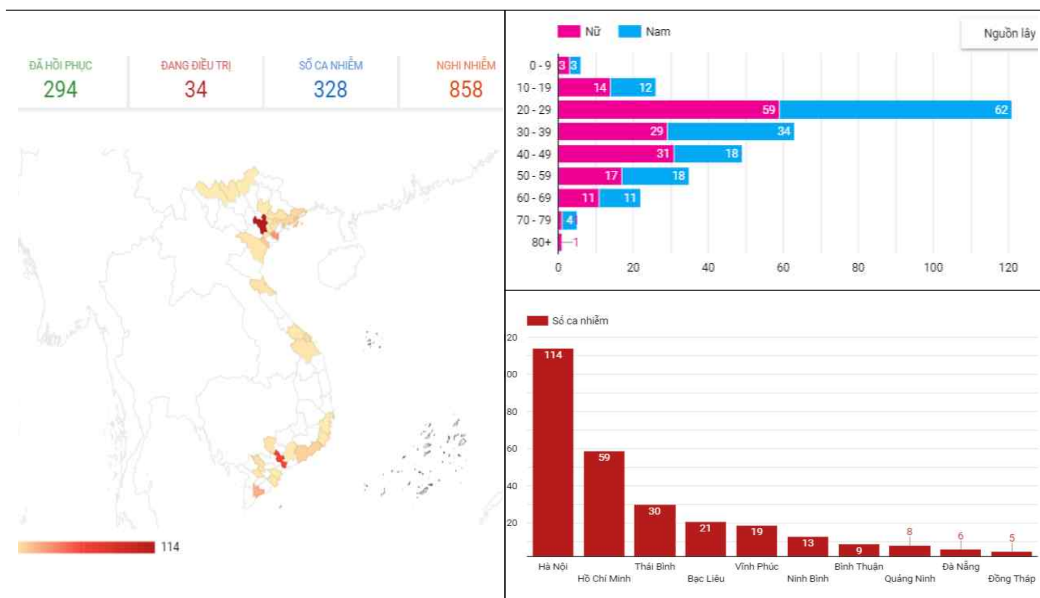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합의

육수현

1. 들어가며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나라를 네이션지는 한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을 꼽았다(The Nation 2020/4/24)¹⁾ 베트남은 2020년 6월 3일을 기준으로 총 328명의 확진자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하노이에 114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호치민이 5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체 확진자 수와 성별 지역별 통계(2020년 6월 2일 기준, 명)



자료 출처: <https://ncov.vncdc.gov.vn/>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전체 통계상 북부가 203명, 남부가 106명, 중부가 19명이다. 성별은 여성이 166명(50.6%), 남성이 162명(49.4%)이며, 30세 미만 감염자가 153명, 40-60세가 84명, 60세 이상이 28명이다. 30세 미만 감염자가 46.6%이고 60대 이상이 전체 확진자 중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감염자의 비율이 비교적 젊은층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이처럼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극단적이지만 강력한 봉쇄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며,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코로나19가 미친 정치경제적 영향을 알아본다.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할과 베트남의 권위주의가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그리고 경제적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19를 전망해본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베트남-한국, 베트남-한국기업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대구 발 비행기 탑승객 격리조치'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시간적 정보와 베트남과 한국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실제로 이 사건 자체보다 한국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베트남 내 한국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반응이 증가하였다. 베트남 한인사회는 나서서 이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앞으로의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우려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일게 만들기까지 하였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한국과 베트남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으로 입국이 계속되면서 두 나라 모두 조심스럽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전망하고 포스트 코로나 속 한국기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베트남은 어떻게 코로나19를 대했나?

1) 베트남 코로나19 발생과 진행 상황

베트남의 가장 큰 명절 기간이었던 2020년 1월 23일 베트남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였다. 중국인 부자로서 아들이 중국 우한을 방문한 이력

1) <https://www.thenation.com/article/world/coronavirus-vietnam-quarantine-mobilization/>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이 있었다. 23일 확진자 발생 후 3일간 의심환자 59명을 격리조치하고 모니터링 하였다. 이후 25일 0시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에 대한 의료검역을 전면 강화하였는데, 부 득 담(Vũ Đức Đàm) 부총리는 경제적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최상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 명절인 뗏(Tet, 설)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기인 만큼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 북부의 경계를 강화하였다. 1월 28일 총리의 지시로, 베트남 보건부는 40개 신속대응팀 구성, 공안부는 출입국 관리 감독 강화, 문화관광부는 여행사 대상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 금지 요청 전보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1월 30일 하노이시 역시 확진 지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같은 날 담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지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베트남 보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11개 시와 성의 관광객과 주민들을 더욱 세심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하노이와 호찌민시, 다낭부터 중국과 국경을 맞댄 쩡닌(Quang Ninh), 랑선(Lang Son), 라오까이(Lao Cai), 카오방(Cao Bang), 하장(Ha Giang), 라이쩌우(Lai Chau) 등의 지역이다.

1월 30일 베트남 북부 빈푹(Vinh Phuc)성에서 중국에서 일을 하고 뗏을 맞이해 돌아온 노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쩡닌(Quang Ninh) 국경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 보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45개(보건부 소속 병원 25개, 군 병원 20개) 규모의 긴급대응기동팀을 구성, 대응체계 마련하여, 전국적인 대응책에 나섬과 동시에 라디오·TV·신문 등 국영 매체, 메신저앱 등을 통해 홍보 강화 조치를 취했다.

2월 1일 중국↔베트남 간 모든 항공편의 운항허가를 임시적으로 중단(13시 기준)하고, 중국 체류 또는 지난 2주 안에 중국에 체류했던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관광사증 발급을 임시 중단하며, 관광목적의 통행허가증을 통한 국경지역 출입국을 막았다. 2월 2일 국적을 불문하고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기록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한다는 사항을 2월 3일부터 시행함을 항공사들에게 통보하였다. 2월 4일 중국↔베트남 육로 교통인 기차 운행²⁾이 중단되면서

2) 중국→베트남 운행중단(2월 4일 18시 5분부터), 베트남→중국 운행중단(2월 5일 21시 20분부터)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베트남과 중국을 잇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었다.

2월 3일 중국 우한으로 연수를 다녀온 빈푹성 소재 모 일본 업체 직원이 추가로 확진되면서(2명은 1월 30일 확진)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약 100명의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격리된 채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 60여 개 대학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2월 3일 등교를 1주일 동안 연기하였다.

또한 2월 13일(베트남 누적 확진자 16명 중 빈푹성 거주자 11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40km 거리에 있는 빈푹(Vinh Phuc)성 선로이(Son Loi)마을을 20일간 봉쇄 차단 조치하는 등 강경한 대책을 이어나갔다. 2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16명 모두 완치되었고, 이후 12일 동안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려진 휴교령을 3월 8일까지 연장하였다. 호치민 인민위원회는 3월 15일까지 학교 문을 닫는다 밝혔고, 베트남 전국의 학교가 대학생과 고학년을 제외하고 3월 7일 또는 15일까지 휴교 기간을 연장하였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실제적 사실(확진자와 사망자 수, 방역 성공 등)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베트남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소강상태가 이어지던 중 3월 7일 이탈리아 밀라노 구찌 패션쇼와 파리 세인트 로랑 이벤트에 참석했던 여성의 확진을 시작으로 3월 8일 1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30명이 되었다. 이 시기 이후 외국발 입국자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3월 15일부터 영국과 유럽 쟁쟁 지역 26개국에서 오는 사람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15일 정오를 기점으로 30일간 외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3월 이후부터 계속된 교포와 외국인 유입은 지역감염을 일으켰고, 영국 국적 비행기 조종사가 호치민 2군에 위치한 유흥업소에 방문하면서 호치민 지역의 확진자를 증가시키는 등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사례가 발생하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비슷한 시기 인근 아세안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5일간 이동금지(격리)조치를 내렸다. 이 시기 필요할 경우만 외출하고, 생활 거리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생활해야 했다. 생활과 관련된 마트, 은행, 약국, 병원은 문을 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동할 경우 30만동(1만 5천원) 벌금을 정할 정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도로 강력한 봉쇄와 자발적인 격리가 시작된 것이다. 마이 띠엔 중(Mai Tien Dung) 정부 부처장은 공장과 작업장 운영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재택근무를 권유하거나 철저한 방역조치 후 운영을 요구하였다.



14일 간의 격리 기간 동안 문을 여는 시설 이미지

15일간의 격리가 끝나고 4월 23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12개의 고위험 지역을 제외한 51개 성을 중심으로 점점 정상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노이의 버스 터미널 5곳이 약 한 달만에 문을 열고 운행이 재개되는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5월 4일 베트남 전국 초·중·고생은 일제히 등교를 하였고, 이는 휴교 3개월만의 일이었다. 5월 14일 기준 지역사회 아무런 감염 없이 6주를 보냈고, 여전히 사망자는 0명이다.

2) 베트남 코로나19 대응 평가: 극단적이지만 합리적이고 동시에 공감적인

(1) 빠르고 극단적이지만 합리적인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을 BBC는 “극단적이지만 합리적인(Extreme but sensible)”조치라고 평했다(BBC News 2020/05/15).³⁾ 2019년 12월 31일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2020년 1월 2일부터 주변국은 우한에서 입국하는 여객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하는 등 경계를 시작하였다. 1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잠정적으로 판정 내려졌고 1월 11일 최초 사망자가 발생했다.

1월 11일 이후 베트남 역시 국경과 공항 통제를 강화했고, 4일 후 베트남 관

3) <https://www.bbc.com/news/world-asia-52628283>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리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통제센터(CDC)와 만났다. 1월 17일 부득담 부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국경(육로, 항공, 항구)의 의료 검역을 강화하는 등 부처 및 관련기관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다. WHO는 베트남의 빠른 위험 평가와 보호 지침을 발행하는 베트남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부응하듯이 1월 31일, 정부는 부득담 부총리가 이끄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 1월 30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지도위원회설립(위원장: Vu Duc Dam 부총리)하여 혹시 모를 사태를 준비하고, 1월 31일 보건부는 45개 규모의 긴급대응기동팀을 구성, 체계 마련하였다.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대 명절인 Tết을 기점으로 베트남에서 발병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일찍이 예방 조치가 제안되었던 것이다.

1월 23일 첫 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은 2월 초 항공과 육로를 통한 입국 제한 조치를 보이는 등 단기간에 높은 강도 결정을 보였다. 2월 13일 2주간 하노이 주변에 있는 마을을 봉쇄하고, 3월 중순까지 61건의 확인된 사례만 가지고 있었지만,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종교 축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정황을 확인하고 호치민시에서 방문한 사원을 즉시 폐쇄하였으며 고향인 닌투언 역시 동일조치 하였다. 3월 21일에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그 후 대부분의 국내선과 열차가 취소되었다.⁴⁾

격리는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3월 21일부터 모든 종교 단체는 대규모 모임을 중단해야 했고, 공공장소에서의 문화행사,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금지되었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은 매우 상징적인 시기인데, 응웬 반 테(Nguyen Van The) 교통부 장관은 국내 노선의 모든 항공편 운항을 멈추고,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 버스, 열차 운행을 중지하였다.

그 결과 4월 29일 이후 코로나 퇴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며, 국경 폐쇄(출입국금지), 지역폐쇄, 경제활동 전면중단, 주민이동 전면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서히 누그러지고, 5월 15일부터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거리 통행금지 해제(3개월 이상 폐쇄되었던)되는 등 빠르게 일상이 복귀되는 중이다.

4) 베트남 당국은 3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객기는 빈푹공항과 푸캇 공항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고시하였으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은 하노이공항과 호찌민 공항 등 주요 공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빠른 대처와 극단적이라고 평가될 만큼의 행동은 국가의 강한 공권력이 베트남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국내 언론과 외신은 베트남의 놀라운 통제력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베트남의 의료 시스템은 자원이 부족하고 특히 건강보험과 환자의 복지와 관련하여 내재된 약점이 분명하지만(Vuong 2015, 2018; Vuong 외 3 2018)⁵⁾, 코로나19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은 베트남은 세계 최초로 SARS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염병의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완전한 격리와 병원 감염 관리를 제대로 구현해야한다는 교훈은 얻었음이 분명하다(Ohara 2004). 이러한 현실의 의료 체계의 부족과 과거의 경험은 베트남이 극단적이리만큼 예방과 방역을 최선으로 생각하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 시민 친화적 소통과 과학 저널리즘의 효과⁶⁾



Lucky Star Gym에 방문한 사람을 찾는 Zalo 문자⁷⁾

1월 초부터 베트남 정부는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국적으로 알려왔다. 전염되는 것만큼 전염시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인식개선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의사소통 방법은 창의적이면서 시민 친화적이었다. 보건부, 정보통신부,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를 휴대폰 문자나 Zalo와 같은 SNS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를 배포하고 업데이트 했다.

2019년 베트남 인구는 약 9,700만 명으로 이 중 인터넷 이용자는 6,400만 명으로 2017년보다 28% 증가했고, 약 5,800만 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이계선 2020). 인구의 약 6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60%가 SNS(Facebook, Zalo⁸⁾ 등) 활동을 하고 있다

5) 베트남의 의료 인력확보 수준은 아직 저조하지만 GDP(국민총생산) 대비 7.07%, 정부지출 대비 14.22%의 보건비 지출비율을 하는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전동연 이슈페이퍼 1 2020: 17)

6) <https://www.mdpi.com/2071-1050/12/7/2931/htm>

7) <https://www.mdpi.com/2071-1050/12/7/2931/htm>

8) 베트남의 SNS인 Zalo는 약 1억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추산할 정도로 베트남의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매체다. (<https://zingnews.vn/zalo-can-moc-100-trieu-nguoi-dung-post844537.html>)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는 점은 인터넷과 SNS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가장 시민 친화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보건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배포한 노래 ‘겐꼬비(Ghen cô Vy, 코로나 싫어)’가 미국의 한 TV토크쇼에서 전파를 탄 후 전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3월 1일 미국 케이블채널 HBO ‘존 올리버(John Oliver) 쇼’에 소개된 노래 겐꼬비는 베트남 유명가수 민(Min)과 에릭(Eric) 그리고 음악가 각 흥(Khac Hung) 등이 참여해 코로나 예방수칙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다룬 경쾌한 노래다. 방송 이후 전세계 네티즌들은 유튜브에서 음원을 찾아보기 시작해 3일 오전을 기준으로 2개 채널에서 210만 뷰를 달성했다. 안무를 기획한 안무가 팡 당(Quang Dang)의 ‘vũ điệu rửa tay’은 베트남 내 SNS에서 ‘챌린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얻었다.



소셜미디어가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 관련 중요한 시기였던 17번째 확진자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유럽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정에 대한 여과 없는 비판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의 가짜 뉴스 역시 SNS를 통해서였다.⁹⁾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호흡기질환감염에 관한 사이트(TRANH TIN VỀ DỊCH BỆNH VIÊM ĐƯỜNG HÔ HẤP CẤP COVID-19)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정부와 방역 당국 중심으로 감염 및 의심환자의 국적, 이동 동선 등을 매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4가지 기간이 있는데, ① 첫 번째 확진자가

9)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1월 23일 이후부터 베트남은 가짜 뉴스를 확산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법령을 공식화 하였으며, 벌금은 베트남의 최저임금인 약 \$200을 상회하는 금액인 \$430-860 사이로 정해졌다.(<https://tuoitrenews.vn/news/society/20200205/vietnam-introduces-hefty-fines-for-spreading-fake-news/52863.html>)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발생한 날인 1월 23일 이전, ②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늘어가던 시기부터 2월 26일까지, ③ 새로운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인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그리고 ④ 마지막으로 17번째 감염사례 이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3월 7일부터 현재까지이다. 물론 지역사회감염자가 0명을 유지하던 4월 16일 이후부터는 해외 유입만이 유일한 확진자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처였다 평할 만하다. 이러한 시기 동안 베트남 정부는 정부의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했다.

베트남의 공중 보건전문가들의 뗏 이후 베트남에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에 따라 정부는 WHO 및 기타 국제적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공중보건 응급 운영 센터와 4개의 위생 및 역학 연구소가 경계를 계속 해야 함과 동시에 시민에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조치가 제안되었다.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chinhphu.vn)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뚜오이 쩌(Tuổi Trẻ), 탕 니엔(Thanh Niên) 또는 쩌 도이 년 전(Quân Đội Nhân Dân)과 같은 다른 뉴스 매체에서도 1월 3일부터 정보를 일찍 공개 하고, 1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나온 기사가 15,000건이 넘는다는 사실은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에게 질병 자체와 예방 그리고 방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식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과학 저널리즘을 활용하는 등 베트남의 과학계가 사실과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한 것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 4월 3일, 베트남의 주요 대학교 중 하나 인 국립경제대학(National Economic University)은 “COVID-19의 평가가 경제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¹⁰⁾ 또한 베트남에서도 다양한 과학자들이 개인 Facebook 계정에 과학 지식과 관점을 자주 업데이트하여 커뮤니티에 알리는 등 과학저널과 과학적 정보는 질병의 정체를 신속히 밝혀, 대중에게 신뢰도 있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각종 루머와 음모 이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¹¹⁾ 하노이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교 (John Hopkins University) 부교수 인 쩌 쑤언 박(Tran Xuan Bach)의 페이스 북 게시물은 거의 13,000 건의 조회 수를 보였으며 대중으로부터의 관심을 불러올 수 있었다.¹²⁾

10) <https://neu.edu.vn/vi/ban-tin-neu/truong-dai-hoc-kinh-te-quoc-dan-cong-bo-bao-cao-danh-gia-tac-dong-cua-covid-19-den-nen-kinh-te-va-cac-khuyen-nghi-chinh-sach-2116>

11) <https://www.sciencemag.org/news/2020/02/scientists-strongly-condemn-rumors-and-conspiracy-theories-about-origin-coronavirus>

12) <https://www.facebook.com/bit84>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Military Medical Academy의 의장인 Viet A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와 공동으로 개발한, 베트남의 코로나19 테스트 키트¹³⁾

과학적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베트남은 단 1시간 안에 코로나19 감염을 진단하는 테스트 키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으며, 이 키트는 WHO 및 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 표준 센터의 기준에 충족한다고 발표되었다. 현재 20개국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한다.¹⁴⁾ 이 외에도 하노이 과학 기술 대학 또는 베트남 과학 기술 아카데미 등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사한 빠른 테스트 키트를 생산할 목적으로 여러 과학 프로젝트가 수행

되고 있다. 3월 3일, 베트남 과학 기술 아카데미는 공식적으로 SARS-CoV-2 바이러스 진단 키트의 성공적인 제조를 발표했다.

3월 31일 하노이 전역에 10 개의 코로나19 테스트 키오스크가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중요 지역 중 한 곳인 박 마이(Bach Mai) 병원 주변에 설치되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고위험 주민을 중심으로 한 건강상태 자체 보고와 같은 차선책에 의존해왔기에 대량 테스트는 전체 인구를 직접 검사하여 조기에 탐지할 수 있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대책으로서 중요한 과학적 발전이다. 이처럼 과학적 성과와 과학저널리즘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시민과의 소통은 코로나19를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국가를 위한 수사: 전쟁, 프로파간다, 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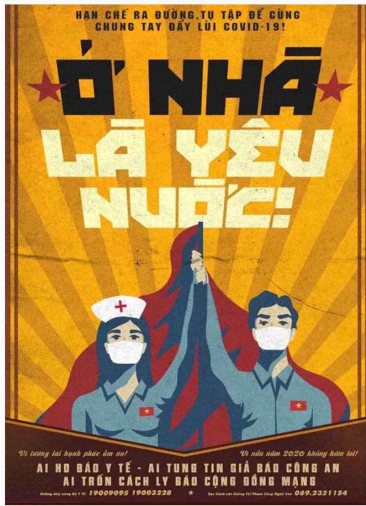
국가를 위하는 마음과 국가를 위한 저항정신은 식민주의와 베트남 전쟁 항쟁 시대부터 SARS와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의 협동과 집단적 노력은 통일성을 강조하는 사회 시스템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식민지를 탈피하게 만들고, 통일을 이룩하게

13) <https://nhandan.com.vn/khoahoc-congnghe/item/43654002-20-nuoc-dat-mua-kit-phat-hien-covid-19-cua-viet-nam.html>

14) <https://nhandan.com.vn/khoahoc-congnghe/item/43654002-20-nuoc-dat-mua-kit-phat-hien-covid-19-cua-viet-nam.html>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하였으며, 도이머이 이후 누구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했다.



Le Duc Hiep 작가의 “집에 머무르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¹⁵⁾

응웬 쑤언 폭 총리의 “모든 사업, 모든 시민, 모든 주거 지역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요새가 되어야한다”¹⁶⁾는 ‘전쟁’수사 속에서 고난의 시기에 베트남 국민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준다. 왼쪽의 프로파간다는 베트남에서 등장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예술 형식 중 하나이지만, 공산주의 정보부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져 온 고풍스러운 선전 미학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르우 옌 테(Luu Yen The) 작가도 마스크 착용¹⁷⁾을 권장하는 선전 포스터를 만드는 등 이색적인 포스터를 찾아볼 수 있다.

히엵(Hiep)작가는 베트남인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인식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베트남인들에게 친숙한 선전 스타일을 선택하였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전쟁 시대의 정서와 애국심을 생각나게 만든 것이다.

베트남의 선전 포스터는 국가의 재결합과 사회주의 구축에 초점을 두던 70년대에 활용했던 형태지만, 현재는 베트남 젊은이와 관광객에게 하나의 문화예술적 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베트남의 프로파간다는 베트남인에게 익숙한 선전은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여유와 빠른 전달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는 코로나19를 ‘전쟁’과 비유하는 정부의 수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베트남 시민의 예방 의식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프로파간다의 역할만큼 베트남 정부와 시민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감시의 문화도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 뉴스와

15)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09/in-a-war-we-draw-vietnams-artists-join-fight-against-covid-19>

16) <https://www.liberationnews.org/why-has-no-one-in-vietnam-died-from-coronavirus/>

17) 일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베트남인에게 마스크는 비교적 익숙한 물품이고,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시기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더운 기후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마스크 쓰기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했던 것이다.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경찰이 방문할 위험이 있으며 지금까지 약 800명이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¹⁸⁾ 민간차원의 자발적 감시 체제는 자유와 개방성이 보장된 나라에선 익숙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선 방역의 최전선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감시’는 초기 조치와 지역사회 전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세밀한 ‘접촉 추적’과 연결될 수 있다. 63개 성 정부에 CDC(질병통제센터), 700개 이상의 지구 수준의 CDC 그리고 11000개 이상의 공동 보건소가 체계적으로 접촉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접촉자와 동선은 공공연하게 공개되며 접촉자의 범위는 직간접적인 범위를 포함해 상당히 넓은 수준이다. 격리는 접촉 수준에 따라 베트남 정부 시설인 보건소, 군사 캠프, 병원, 호텔, 자택 등에 배치되었으며, 5월 1일 기준으로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시설에, 14만 명이 자택이나 호텔에 격리되었다.¹⁹⁾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은 빠르고, 극단적이지만 합리적이었으며, 시민친화적이면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한 소통 방식이었다. 그리고 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강한 공권력 이미지와 국가의 강력한 통제는 베트남 시민 스스로가 국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이 더해져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3. 베트남 코로나19의 정치경제적 영향

1)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할 확대²⁰⁾

베트남은 2020년 ASEAN 의장국이 되었다. 25년 전 아세안에 가입 한 이후 세 번째로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의 허브로서 베트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제무대에서 그리고 아세안에서 어떠한 행위자가 될 것인지 기대가 높아진 것 역시 사실이다.

18)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3/vietnam-contain-covid-19-limited-resources/>

19) <https://edition.cnn.com/2020/05/29/asia/coronavirus-vietnam-intl-hnk/index.html>

20) <https://thediplomat.com/2020/04/the-secret-to-vietnams-covid-19-response-success/>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그런데 베트남이 올해의 아세안 아젠다를 공개하기도 전에 코로나19의 확장
과, 전세계적 팬데믹이 도래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 경제의 흐름, 국간 교류를
정지시켰고 베트남의 ASEAN 의장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약 1,000개 이상의
아세안 회의는 대다수 연기되었으며, 일부 긴급한 회의는 웹을 통해 개최됐다.

코로나19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베트남 의장 하에 아세안은 화상 채널을
활성화 하여,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계획했고, 2월 14일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 대응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는 바이
러스 위험을 인지하고, 지역 사회와 국제협력 그리고 아세안 연대를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과 통제
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뒤이어 올 경제적 여파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되었
다. 베트남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4월 14일 코로
나19 대응 특별 아세안+3(한·중·일) 원격 회의를 주최하는 등 아세안 의장국으
로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EU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으며, 4월 16일
코로나19에 대한 다자주의와 4월 19일에 G20 보건장관 가상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더욱이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응집력을 바탕으로
의료 장비와 보호 장비를 이웃 나라에 지원하는데 앞장서는 등 유럽과 남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²¹⁾

2020년 6월 베트남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행
했던 방식은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뿐만 아니라 서구에도 깊은 인상을 미쳤다.
게다가 ASEAN의 의장국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적 지역 대응을 지원하고, WHO의 지침에 따라 공동 대응 프로세스를 개발
하는 노력을 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 교류의 길이 막힌
상황이 불러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위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이끄는
것이 올해의 역할이라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베트남의 모습은
국제무대에서의 베트남의 위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 https://www.aseankorea.org/kor/New_Media/notice_view.asp?page=1&s_date=MONTH&s_range=ALL&S_ALLTEXT=%EB%B2%A0ED%8A%B8EB%82%A8&BOA_GUBUN=12&BOA_NUM=15458

2) 베트남 민주주의 원칙과 권위주의 실천

베트남은 중국의 정보 은폐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²²⁾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정보와 자원을 통제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 역시 사생활을 보호하고 통제력이 강하게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팬데믹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지만, 어떠한 대응 조치가 적합한지에 대한 성급한 결론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어느 쪽으로도 쉽사리 결론이 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은 미디어 검열과 정보 통제 측면에서 중국보다는 더 개방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2019년 1월 사이버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중국과 같은 정보의 검열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병 초기 단계에서 중국의 질병 통계에 대한 의구심은 베트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었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팜 빈 밍(Pham Binh Minh) 외무장관은 중국 국경 폐쇄가 불필요하며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발언하여²³⁾, 중국과 정치경제 관계를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여론의 공분을 샀으나 후엔 중국과의 과감한 통제와 중국 방문객을 금지함으로써 다시 신뢰를 얻었다.

베트남 정부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느리기는 하지만 정부 문서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PAPI(Public Administration Performance Index, 공공행정성과 지수) 점수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명성 노력은 정부의 코로나 19 보고에 대한 회의론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²⁴⁾ 보건부가 모든 보고를 게시하고, 온라인을 통한 블로거, 과학자, 공중보건 전문가의 정보가 공유 되는 등 모든 시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22) <https://thediplomat.com/2020/03/how-vietnam-learned-from-chinas-coronavirus-mistakes/>

23) <http://news.chinhphu.vn/Home/COVID19-combat-not-affect-trade-activities-with-China/2020/38910.vgp>

24)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0/05/20/reopening-vietnam-how-the-countries-improving-governance-helped-it-weather-the-covid-19-pandemic/>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당국은 질병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Facebook에서 무제한 정보를 허용했다. 베트남은 여전히 하나의 당만을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로 여겨지지만 국민의 존재와 삶을 최우선으로 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민주주의적 의식과 합리적인 공권력 시행은,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²⁵⁾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문화와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권리를 포기하고 질병 예방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한된 의료 시설과 자원 속에서 베트남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의 민주적 정신을 활용해 코로나19를 통제해나가고 있다.

3)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1) 베트남 GDP 성장률 둔화 전망

베트남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조치와 통제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다. 이동을 제한하고 국경을 통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교류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이 더 위축되고 있다.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중국을 통하는 육로 국경 임시 폐쇄 되면서 중국발 또는 중국도착 트럭 물류가 공식적으로 임시 중단되어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각종 농산물 보관과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2월 5일부터 검역을 권고하는 과정으로 바뀌면서 북부 량선성 국경 검문소에서 수출입통관은 재개되었으나 검역 절차가 강화됨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항공 역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중국 간 모든 스케줄 항공이 취소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통제 초기에 베트남 시민들 역시 외출을 자제하면서, 쇼핑몰, 슈퍼마켓 등에서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아침에도 외식을 할 정도로 외식을 즐겨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집에서 식사를 하는 문화가 생성되기도 하였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남부 지역 냐짱(Nha Trang)은 마트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하노이,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다.

25) <https://thediplomat.com/2020/03/how-vietnam-learned-from-chinas-coronavirus-mistakes/>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며 2019년 성장률인 7%를 토대로 정부가 목표한 6.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특히 관광 산업과 수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경제적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국내외 시장과 관광 산업·수출업의 회복 그리고 제조업의 FDI 유입 확대를 예상할 때 GDP 성장률은 7.3%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⁶⁾

최근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Vietnam Institute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VEPR)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의 베트남 경제 영향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 발표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만이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가정은 코로나19가 8월 말까지 계속될 경우,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연말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0년 2분기 -4.9%, 3분기 -1.1%로 역성장이 예상되어 2020년 전체로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11월 말에 진정될 경우로 경제가 2020년 4분기 중반에 가서야 회복되어 2020년 2분기 -5.1%, 3분기 -5.3%의 역성장이 예상되며 2020년 전체로는 -1%를 예견했다.²⁷⁾

5월 7일 응웬 쑤언 폭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최대 50%였던 대중교통 인원제한도 해제되고 스포츠 활동과 집회 개최를 일부 승인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중국 간 국경 중 랑선과 팡닌 국경 검문소 통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클럽과 가라오케와 같은 비필수 서비스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제약이 해제되었지만, 관광이 GDP의 6%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국경과 관광이 언제 정상화가 될지 불확실하다. 국제 노동기구(ILO)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2분기에 최소 천만 명의 베트남인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코로나19 초기 발생 이후 중국 공장은 거의 3주 동안 문을 닫았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베트남 공장 역시 중국으로의 주문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GVC)에서 중요한 역할로서 중간재를 생산하고 아웃소싱을 주는 중국의 문제는 단순히 중국 자체에만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26) 베트남 시장뉴스, '20년 베트남 GDP 성장률 둔화 전망, 2020/04/15,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type=0&nIndex=1796849>

27) https://www.aseankorea.org/kor/New_Media/notice_view.asp?page=1&s_date=ALL&s_range=ALL&S_ALLTEXT=%EB%B2%A0%ED%8A%B8%EB%82%A8&BOA_GUBUN=12&BOA_NUM=15450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합의

베트남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글로벌 생산 체계에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이 연속되게 만들었다.²⁸⁾ 이처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단순히 국가 하나의 일만이 아니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내외적으로 논의와 합의 역시 중요하다.

(2) 정부지원 정책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2020년 2월 베트남 중앙은행은 0.5~1% 포인트 금리인하 및 거래수수료를 폐지하고 민간은행들도 이자율 낮추기를 요청했다. 민간은행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 총 124억 달러 규모의 저리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²⁹⁾

이러한 1차 조치에 이어 베트남 총리는 자기결정문을 통하여 3월 4일 「Directive No.11/CT-TTg(이하 'Directive 11')」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은행 및 재무부 등 각 정부부처에 코로나 19 사태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에게 신용지원, 세금 감면, 인센티브 등의 조치 마련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험료 징수 연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각종 지방정부 수수료 및 부과금 감면, 2020년 1분기, 2분기 중 생산용 원자재 가격 인상금지, 산업무역부로 하여금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관리, 직업훈련 지원, 실업자 지원, 베트남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해결책 강구”³⁰⁾ 등이 다.

그리고 4월 8일 「시행령 41」에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시됐다. 기업의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과 토지임차료 납부기한이 5개월 연장되는 등 약 70만개 이상의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도 부가세와 소득세 납부기한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모든 개인과 다국적 사업자들의 기업운영과 관련한 대다수의 정책적 지원을 행한 것이다. 또한 4월 24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인 QD15/2020/QD-TTg³¹⁾도 발

28)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vietnam-southkorea/the-coronavirus-dominant-effect-south-korean-tech-firms-reel-as-vietnam-links-curbed-idUSKBN20S2WX>

29) 베트남 HDBank는 거래수수료 50% 인하, 대출이자율 인하, 의료기기·의약품 공급 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 ABBank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1억 7,2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30) https://www.aseankorea.org/kor/New_Media/notice_view.asp?page=1&s_date=ALL&s_range=ALL&S_ALLTEXT=%EB%B2%A0%ED%8A%B8%EB%82%A8&BOA_GUBUN=12&BOA_NUM=15450

31) <https://thuvienphapluat.vn/van-ban/lao-dong-tien-luong/Quyet-dinh-15-2020-QD-TTg-ho-t>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표되었는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초 정부는 베트남 빈민들을 위한 25억 달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가장 취약한 사람은 주당 76달러를 받았다. 또한 주요 도시에 “Rice ATMs” 와 “zero dong store”가 만들어 지는 등 민간지원을 시작했다.

베트남경제정책연구소는 베트남 정부가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급적 덜 받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슬기롭게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출용 마스크 생산과 같이 효과적인 전환을 한 기업들의 경우는 생산촉진을 위한 특혜를 제공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전망

베트남의 VinaCapital은 코로나19의 미래의 수혜자는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을 유지하며,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남아 제조 허브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미중무역갈등이 심해지면서 많은 다국적 기업 심지어는 중국 기업까지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일례로 2019년 말경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다가,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첨단 기술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미중무역 전쟁의 반사이익 상황이지만, 베트남은 돈도 기업도 끌어서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다국적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³²⁾ 게다가 코로나19 대응 초기 중국이 보여준 은폐와 무능함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고, 생산성과 가격을 문제로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강한 사회문화적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베트남은 초기에 강력한 통제와 격리를 보이며 성공적이라 부를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보였고, VinaCapital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평론가들에게도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회복력과 국제무역 활성화에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음을 인정받는 추세다. 특히 베트남 경제는 FDI 의존률이 높으며, 총 수출

ro-nguoi-dan-gap-kho-khan-do-dich-COVID19-441047.aspx
32)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11070821>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액 중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비중이 69.3%로 나타나는 등 수출시장에서도 외투기업의 역할이 강하다보니 베트남 내부적인 요인과 더불어 외부의 노력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서 제조업과 무역에서 좀 더 빠른 경제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의 다국적 기업은 비단 제조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며, 서비스 산업으로의 진출도 활발하다. 2018년 기준 GDP중 3차 산업 기여도는 38.8%로 2차 산업 35.6%보다 조금 우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³³⁾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인구와 경제력 상승으로 인해 시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코로나19의 영향과 함께 온라인 시장의 발달과 플랫폼산업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택근무와 온라인교육을 증가시켰고, 거기에 따른 기술산업도 더불어 발전했다. 베트남은 현재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 웹엑스(Webex)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 주요 이동통신사에서 개발한 V-Com(VNPT사), Vmeet(Viettel사), MegaMeeting(Mobifone사) 등 현지 화상회의 플랫폼도 두루 사용되는 추세다. 또한 홈트레이닝,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원격 의료 등 비대면(Untact) 산업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확대된다. 이러한 산업분야와 방식의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서 매력이 더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되어 경제 회복에 청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베트남의 내부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것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베트남의 관광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며 2019년 1800만 건의 국제 방문이 있었고, 이는 2018년에 비해 더 높은 수치이다. 현재 약 80만 명이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데, 베트남 방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던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그리고 기타의 다른 외국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6월 이후부터 항공편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비자와 14일 격리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상화는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이다. 다낭 불꽃 축제 취소, F1 베트남 그랑프리 무기한 연기, 외국인 도착비자 발급 정지 등의 이유로 유명 관광지인 다낭시에도 베트남 연휴가 있는 4월 말과 5월 초 동안 방문객의 숫자가 2019년 보다 98.5% 감소하였고, 하노이 역시 80%이상 줄었다.³⁴⁾ 베트남의 관

33) ASEAN Statics Yearbook 2019(46쪽)

34)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s/28770/in-vietnam-economy-could-be-hit-hard-d>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광부분 재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국내 여행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많은 호텔과 리조트가 베트남 국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상당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점차 늘어가는 실업률과 경제 위축은 쉽사리 풀리지 못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제13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현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경제 성장을 회복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것처럼 현 정부는 베트남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이뤄내야 하며, 이러한 변수는 포스트 코로나 19 시기 베트남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4. 코로나19 상황 속 로컬사회와 현지교민사회의 이슈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도 한국과의 교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2019년 양국의 교역액은 약 620억불,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45억불, 상호 방문객은 485만 명으로 아세안과의 교역, 투자, 인적교류의 가장 큰 비중 (각각 40%, 47% 3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과 투자의 중심에는 한국기업이 있는데, 현재 베트남에는 6천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약 20만 명의 교민이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다.

단순히 국가대 국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의 관계까지 아우를 정도로 베트남과 한국은 밀접하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정부는 삼성, LG 등 한국투자기업 직원의 예외적 입국 허용을 조치했다. 베트남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2월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에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한국 관광객의 베트남 격리 사태가 발생했다. 그 사건 이후 베트남 내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1) 대구 관광객과 빵 조각 사건

한국은 2월 19일과 20일에 신규 확진자 수가 51명으로 증가 한 후 24일까지 대폭 증가하며,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23일과 24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상회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2월 22일 기준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금지 조치, 입국절차 강화를 실시한 국가는 12개국이었으며, 점점 확대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2020년 2월 24일 오후 1시쯤 대구에서 온 베트남의 저가항공기가 베트남 중부에 있는 다낭공항에 착륙하였다. 탑승객 중 베트남인 58명, 태국인 2명, 그리고 한국인 20명이었다. 이 비행기 승객 중 한 승객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즉시 다낭시 폐전문병원에 격리 조치하였고,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다른 사람들도 차로 폐전문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한국 관광객들 중 일부는 귀국하기를 원했고, 또 다른 일부는 호텔에 격리하기를 희망하거나, ‘다낭 관광 일정이 이틀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기하며 격리에 불응하였다고 한다. 호텔 격리를 위해 의료청은 썬차군에 위치한 호텔을 섭외하였고, 숙박비용은 다낭시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같은 비행기를 탔던 베트남 사람 1명이 열이 난다는 소식을 들은 후 한국 관광객들은 의료적 돌봄을 받지 못할 호텔보다 병원 격리가 낫겠다는 판단아래 다시 병원 격리구역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다시 또 내부적인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후 5시 썬차군 호텔로 가기를 대사관 직원이 전달하였으나, 호텔이 거절하였다. 오후 6시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관광객들은 하이쩌우군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호텔의 숙박비 역시 다낭시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호텔이 바로 준비가 되지 못하면서 관광객들은 저녁 10시까지 임시로 병원에 머물렀는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전문 시설이 있는 병원 격리를 설득하는 등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³⁵⁾

2월 25일 다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황득터(Huynh Duc Tho)는 24일 입국한 한국 관광객 20명을 귀국 조치하는 방안에 합의를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제안, 중부지방 항공국과 Vietjet Air 항공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된 사항이었다. 또한 인민위원장은 관광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는 후속조치도

35) <https://vnexpress.net/nhom-khach-han-quoc-khong-muon-vao-khu-cach-ly-4059755.html>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취했다. 사과문은 다낭 관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코로나19 확산 및 위험성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조치였음을 이야기 하면서, 불편함에 대한 사과와 이해요청을 담고 있다.³⁶⁾ 2월 25일 저녁 비행기로 한국인 관광객은 귀국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 했지만, ‘감염병 확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원론적 답변만 들었다”³⁷⁾고 한다. 베트남과 한국의 기사에서 22일부터 입국 금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입국 금지에 대한 정확한 공문 발행은 대구발 비행기가 다낭에 도착한 24일이었다.

주베 대한민국대사관의 공지와 다른 기사를 살펴봤을 때 베트남과 대사관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대구·경북지역에 물려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베트남 정부의 정확한 공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경우 영사관에서 곧바로 대응을 하였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다. 다낭 인민위원장의 사과문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변수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듯싶었다.

시기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2020년 2월 22일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베트남 당국이 입국 불허 조치를 취하거나 비자발급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베트남에서 격리 조치 될 수 있다
2월 23일	대구↔베트남 간 항공노선이 현재 비운항 또는 감편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과 베트남 당국이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 상황에 따라 격리 조치 및 입국 불허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
2월 24일	(최근 며칠 내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베트남 정부는)23일 15시 이후부터 한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역신고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으며, 총리는 “국민의 보호를 위해 베트남 내 감염증 전파를 막아야 하며”, WHO 권고 기준보다 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조기 인지 및 격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

36) <http://kinhtedothi.vn/dua-20-du-khach-han-quoc-ve-nuoc-chu-tich-da-nang-viet-thu-bay-to-ve-su-dang-tiec-376023.html>

37) <http://www.segye.com/newsView/20200224517971?OutUrl=naver>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2월 25일	대구 발 비행기 다낭 입국과 격리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구·경북 거주자 또는 최근 14일 내에 이곳에 체류한 입국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입국 제한하며, 도착한 자에 한해 한국 귀국 조치 또는 베트남 시설 내 격리 조치 예정
2월 26일	한국의 전염병 발생지역(대구·경북지역)에서 오거나 경유한 자는 베트남 입국 금지하며, 특별공무목적이라 하더라도 검역신고서 제출하고 14일간 격리 실시
2월 28일	[긴급]이 달린 공지로서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및 최근 14일 이내 체류·경유자는 입국 금지가 되었고, 그 외 입국자는 입국은 가능하지만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29일부터 한국인의 15일 무사증 입국이 임시적으로 중단 되었다.
2월 29일	이후 공지부터는 입국 불허, 출발지로 되돌려 보내기, 시설 격리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는 공지가 계속되면서, 29일엔 대사관 차원에서 한국인의 격리조치 사항 관련 대응팀을 배치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지하였다. 또한 29일부터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대신 하노이에서 3시간 떨어진 곳인 꽝닌에 위치한 번돈 국제공항(Van Don International Airport)를 이용하도록 조치했다는 알림과 함께 공항 내 긴시간 대기, 검역 절차 실시, 검역 결과에 따른 14일간 시설격리 가능성 존재함을 인지하고 베트남 방문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을 권유

출처: 주베 한국대사관 공지사항을 연구자 재정리

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격리가 되었다”거나 “자물쇠로 잠긴 열악한 환경에서 격리되었다는”³⁸⁾ 한 언론사의 보도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다. 즉, 자극적인 내용으로 베트남 당국의 조치를 보도했고, 다른 외국인들이 있었고, 그들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는 부분은 쪽 뻥 채 한국인만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것처럼 보도하는 등 한국 언론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는 계속됐다.

기사 보도 후 한국의 뉴스를 본 베트남인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베트남의 격리조치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수사들이 실제와는 다르며, 한국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베트남 국민도 군대나 병원 격리가 원칙이지만 호텔 격리를 고민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며, 베트남의 최선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아침으로 제공된 반미(Banh Mi)라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베트남 관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유명 음식을 “빵 쪄가리”라고 표현 하는 등 베트남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내보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

38)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261657219162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면서 트위터에 해시태그(#)로 ApologizeToVietNam, KoreansStopLying을 개시했다. 이후 약 70만 건 넘게 트윗되면서 베트남 내 한국인과 한국을 질타하는 의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³⁹⁾ 베트남 내 이러한 여론은 혐한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괜한 오해로 인해 실제로 현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에게 긴장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었다.⁴⁰⁾

이에 해당 언론사는 논란이 된 돌발영상 자막 오류와 ‘베트남 다낭 한국인 감금’과 같은 과장 보도를 내부 공론화 기구 공정방송위원회에 올려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등 취재도 불충분 한 상태에서 한국인의 편향된 시각만을 전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3월 4일 유튜브 영상 댓글에 입장을 공지하였다.⁴¹⁾



이후에도 한국인의 격리는 계속되어다. 경제적인 교류와 여결이 깊었기에 인적교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공지를 보면 28일부터 무조건 14일 자가격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로 인해 28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입국한 한국인 가운데 100명이 이를 동안 공항과 병원 등지에 강제로 격리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⁴³⁾ 실제로 3월 1일 대사관 공지는 한국에서 베트남에 입국하는 인국인의 일정기간 동안의 시설 격리 가능성을 크게 이야기 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교민의 자가격리 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을 베트남 보건 당국과 공유하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필

3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61613012194>
 40)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4&seq_800=0010380220
 4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90>
 4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61613012194>
 43)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9058951084>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히 준수하기를 권고하고 있었다. 3월 5일 코로나19로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신속대응팀이 현지로 출발하였으며, 베트남 내 한국인 격리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6월 3일부터 베트남항공이 베트남 호치민시와 하노이발 인천행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여전히 인천에서 호치민과 하노이로 향하는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지만 각 도시에서 주 2회 출발한다. 또한 5월 26일 7월 1일부터는 80개 국가들의 e비자 신청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는데 7월 1일부터 무조건적인 입국허용이라는 의견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 및 교류회복의 시작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6월 8일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가운데 베트남 현지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 등 200여명의 입국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하노이 시내 호텔에서 2주간의 격리를 해야 하지만, 외교관과 공무 목적, 기업의 필수 인력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던 베트남 정부가 외국 유학생에게 문호를 개방한 처음 사례다.

2) 베트남 내 기업의 민간외교사로서 노력의 의미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1990년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1990년대 주요 투자국은 중국이었다. 같은 시기 베트남도 조명 받았지만, 중국만큼은 아니었다. 2010년 이후 아세안으로의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대다수의 공적·사적 투자는 베트남으로 쏠리게 되었다. 2017년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베트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갔다. 베트남에 삼성, LG, 포스코, CJ와 같은 대기업부터 제조업의 협력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 민족까지 모든 종류의 기업이 진출해 있거나, 준비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정부는 삼성, LG 등 한국투자기업의 직원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재 베트남엔 대기업만 진출해 있는 것은 아니다. 약 20만 명의 교민이 베트남에서 교육, 사업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의 주요 도시 어디서든 한국 식당을 찾을 수 있고,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은 한국인 거리 또는 한국인 거주 지역이 있을 정도로 일상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이 코로나19 피해를 보기 시작하던 초기만 하더라도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과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농가를 지원하는 등 한인회, 코참, 진출기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업·기관(삼성, 포스코, 한국전력, 두산, 대우 등)의 적극적 교류와 지원이 있었다.⁴⁴⁾ 국경이 통제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품 운송이 제한되는 까닭에 삼성 전자와 LG 전자의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베트남과 한국, 일본을 오가는 직항 노선의 운항을 중단시켰다는 가짜 뉴스가 떠돌았을 때 베트남 당국의 뉴스 유포자 색출 노력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등 두 나라 사이의 산업 교류 및 민간 교류의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2월 21일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외교부는 한국 체류 베트남 국민에게 한국 내 코로나19 발생지역 여행 자제를 권고 하는 등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경북·대구 발 비행기가 다낭에 착륙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을 이야기 할 때 많은 외신과 베트남 내부 여론은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베트남의 통제는 누구보다 빨랐으며, 마을 하나를 봉쇄할 정도로 극단적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베트남은 0명의 사망자, 추가 지역감염 확진자 역시 0명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전쟁의 수사를 사용할 정도로 베트남 정부는 이 사안을 중차대한 일로 다루었고, 시민은 자국의 의료시스템의 한계가 가져올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통제와 봉쇄 정책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한국인을 격리조치 했다는 점이 분명하지만 이 시기 한국인 입국을 통제하거나 거부했던 나라가 적지 않았고,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이 되돌아오는 사건에 비해 조금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비춰졌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촉각을 다투고, 실제 초등 대응 미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이 격리되는 과정에서 병원 시설을 무시하고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낮춰서 평가하는 등의 내용을 언론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일은 베트남 내 여론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의 피해는 베트남 내 교민과 기업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 여행을 하던 한국인 관광객의 에어비앤비 예약 취소, 그랩 차량 호출 무시 및 취소 등 일상적인 피해를 입는 수준에서부터 온라인 내 퍼져나가는 험한 정서는 한국보다 베트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피부

4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213010008194>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에 더 와 닿았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공외교의 영향이 무너질만한 사건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은 국경을 닫고, 교류를 멈추게 하며, 떨어진 물리적 거리만큼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했다.

더욱이 베트남과 한국의 항공이 중단되고 한국발 비행기의 승객은 모두 14일간 격리하겠다는 지침이 발표되면서 베트남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교민, 사업가, 기업 관계자 들은 베트남 정부가 준비한 시설에 줄줄이 격리되면서, 격리시설의 물리적 수준을 폄하 하면서 “한국인 집단 수용소”라고 하거나 “위협적이고 강압적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다루는 내용의 유튜브가 생겨나기도 하였다.⁴⁵⁾ 이러한 반응이 일파만파 커지자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와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은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박항서 감독과 함께 3월 6일 하노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군부대와 병원 등 격리시설 16곳에 있는 한국 교민과 베트남 국민 300명에게 의약품과 생필품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p>베트남연합한인회 활동 홍보지</p>	<p>여행업체 '다마싸'의 이벤트</p>

온라인 캠페인도 벌어졌는데, 베트남에 있는 여행업체 ‘다마싸’는 양국간 문화적 이해와 협력 그리고 우호증진을 위해 SNS 이벤트를 진행해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삼성 전자의 구미사업장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서 수차례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3월 6일 삼성전자는 전량 구미에서 생산하던 갤럭시S20 시리즈 등을 베트남에서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⁴⁶⁾ 하지만 2월 말부터 한국을 통해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14일 격리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글로벌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OLED 모듈 공장을 증설하려던 계획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했다.

45) https://www.youtube.com/watch?v=O6cUPGmzBTg&feature=youtu.be&fbclid=IwAR1Uq9_d6oCIB-QrDWPEp6U09jd5jZwH1Qou_QP9Uyiu0iaWh_qgkrcG3QI

46)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7/2020030700058.html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이러한 기업 활동의 제약, 한국인 관광객 입국제한 등의 요인은 베트남 내 한인경제에도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직원도 줄이고, 직원 월급을 30% 수준으로 삭감했으나 작은 규모의 자영업은 휴업을 하거나 파업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대형 여행업체는 석 달간 무급휴가를 도입하여 근무를 교대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상가 매물이 나오는 등 침체되는 분위기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은 교민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 간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는 교민과 사업가 모두에게 반갑지 않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기업대표는 한국 언론에 “대구·경북이어서 미안해”라는 글을 투고해 한국과는 다른 베트남 의료상황과 한국 뉴스전문 방송사의 자극적인 보도가 국가 간의 문제를 만들고 있으며, 그동안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⁴⁷⁾ 이처럼 베트남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인, 교민, 대중은 적극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한국 매체의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영상 및 방송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3월 7일 베트남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 이후 베트남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은 잠잠해져갔다고 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시선은 다시 코로나19에 집중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관계 역시 3월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의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3월 24일 LG도 전세기를 띄워 베트남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는 등 베트남에 핵심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전자업체의 고분군투가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났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노력은 신한은행, 대상, 아워홈, 풀무원, 한화생명, 오리온, K마켓 과 같은 기업의 기부와 나눔 행사로도 이어졌으며,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커피기업인 쥘웬레전드그룹이 대구·경북 및 수도권 의료진에 베트남 국민커피인 G7 2만 잔을 기부하는 등 양 국가의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베트남과 한국은 각각 사회적 거리를 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즉,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온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선 베트남 내 ‘혐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삼성을 퇴출해야 한다는 소문을 언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베트남 관련 뉴스 기사엔 비판의 댓글이 가득하고, 유튜브에선

47) <http://www.newsfm.kr/mobile/article.html?no=4533>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베트남의 행동을 ‘배신’으로 낙인찍는다. 여전히 사전 협의 없이 강제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빌어 잘잘못을 따진다. 하지만 한 베트남 하노이 특파원의 기사처럼 “베트남에 혐한은 없다.”⁴⁸⁾ 반한 감정은 국가 간 관계 회복 활동과 민간차원의 노력으로 인해 수그러들고 있다. 베트남은 이례적으로 한국기업인들의 대규모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의 한국기업인 입국은 삼성의 경우 3월 중순에 시작되었으며, 2주간의 격리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특별대우(별도의 영역에서 작업)를 해주었다.⁴⁹⁾ 그리고 4월 23일까지 총 7번의 입국이 허용되었다.⁵⁰⁾ 이러한 내용의 보도는 베트남의 주요 언론매체 몇 곳에서만 다뤄졌었고, 베트남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인 4월 15일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4월 초부터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의 협상으로 인해 4월 말경 한국의 중소기업인 340명의 특별 입국이 허가⁵¹⁾되는 등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은 누구보다 빠르고 특별했다.⁵²⁾

5. 포스트 코로나19 전망 속 한국기업의 시사점 : 뉴노멀시대 상생하는 성장을 위해

2016년 미래전략보고서에서 10년 후 한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된 10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미래세대 삶은 불안정, 고용불안,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이었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 2016).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시대를 겪게 될 것이라곤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전세계에서 진행형이

4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526010014004>

49) <https://vnexpress.net/700-ky-su-samsung-sang-viet-nam-se-lam-viec-o-khu-rieng-biet-4068994.html>

50) <http://baoquangninh.com.vn/xa-hoi/202004/don-chuyen-bay-thu-7-cho-cac-chuyen-gia-han-quoc-sang-viet-nam-2480320/index.htm>

51)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v&Seq_Code=45466

52) 대만의 경우 5월 19일 처음 158명의 기업인이 입국하였다. 베트남 북부 국제비행기의 착륙을 허가하는 번돈(Van Don)공항은 지난 3개월 동안 11편의 비행으로 한국 엔지니어와 전문가를 입국시켰다(<https://laodong.vn/xa-hoi/158-chuyen-gia-dai-loan-dau-tien-nhap-canh-vao-viet-nam-qua-van-don-806481.ldo>)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고 그 영향이 개인부터 집단 그리고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역에 얼마만큼 미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으며,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10년 후 한국사회에서 중요하다는 10대 이슈가 좀 더 빠르게 찾아왔을지 모르겠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다. 작년까지만 해도 6%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고, 희망찬 2020을 예상했을 것이다. 미중무역 갈등으로 인해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을 다수 유치했고, 애플, 구글, 아마존도 베트남으로의 진출을 이야기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습격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베트남을 시험에 들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은 2020 성장률 예상치를 1.5%까지 끌어내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경을 닫고 교류를 멈추면서 사람, 물건, 자본의 이동이 사라짐에 따라 실업, 경기 불황이 베트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대응은 완벽했고, 베트남은 6월 중순 기준 여전히 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와 시민은 주변 아세안국가뿐만 아니라 서구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안전하게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켜낸 것이다. ‘사망자 0명’이라는 상징은 베트남과 베트남 시민의 국격을 높여주는 의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슈퍼전파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인 비행사의 건강위독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 염원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⁵³⁾

국민의 건강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추를 달고 외줄타기를 하는 베트남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성공적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코로나19에 대해 단결했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이루어 냈다. 확진자가 갑자기 불어나게 된 두 번째 시점인 3월 8일에서 5일 뒤부터 삼성과의 경제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 개방은 철저한 방역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개방했으며, 한국 기업의 예외 입국 허용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업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교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관광’도 서서히 움직임을 시작했다. 최근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7월부터 관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예견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정기에 접어든 나라들끼리의 교류를 필연적으로 재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관광은 베트남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빠르고 안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변수로 인해 멈춰 있던 세계는 다시 달려야 하고,

53) <https://news.v.daum.net/v/20200610132803646>

베트남의 코로나19 영향과 한국기업의 함의

각 국가는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투자자들의 대베트남 지분 투자 금액은 29.9억 달러로, 건수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39.1%에 불과했지만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11.6% 증가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짐작 가능하다. 이러한 투자 금액의 증가는 미중무역분쟁 심화와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글로벌 공급망 전환과 투자 흐름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나빠진 베트남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 인수 합병하여 기업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일 수 있다.⁵⁴⁾ 이처럼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본의 아니게 만들어졌고, 한국기업도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정도로 시사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베트남에서 필요하고 수용가능 한 물품과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시대엔 개인 단위의 소비 인식, 소비 품목, 소비 채널이 필요하다. 이러한 항목들의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e커머스 시장의 확대는 플랫폼 산업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베트남 IT인력 수요 역시 10년간 4배가 상승하면서,⁵⁵⁾ 이러한 분야로의 진출이 아직 원활하진 않다 하더라도 시장 형성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미래의 베트남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EU-베트남 FTA가 비준 되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경제 위기의 두려움을 하나씩 이겨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차 산업만큼이나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의 변환도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다음으로 한국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관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베트남과 한국 기업의 역사는 오래됐고 누구보다 밀접하다. 약 6,0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가 보여준 중국의 상황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깊은 시사점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매력적인 베트남 시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단순히 수치적으로 '많다'는 평가가 아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경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야 할 때는 찾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54) <https://vietnamnews.vn/economy/727919/covid-19-to-create-an-m-a-wave-in-viet-nam.html>

55)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data-speaks/vietnam-it-demand-quadruples-in-10-years-report-4109823.html>

VIP 3국의 코로나19의 현황과 한국기업

문화의 로컬 스탠다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로컬사회의 문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 지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대구발 비행기의 탑승객 격리 사건 이후 한국에선 뒤통수를 쳤다든지, 배신자라든지, 배은망덕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공여자이고 받는다고 해서 수혜자인 관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을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인식하고 베트남의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문화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의 주변 환경은 탓할 필요가 없다. 베트남 내 진출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로컬의 문화와 기준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알아야 한다. 현재 한국기업은 북부, 중부, 남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실정이며 베트남 내부적 경제발전에도 따라 인건비, 임대비, 세금 등이 다르다. 이러한 인프라 비용 때문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한다. 베트남과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비즈니스가 아닌 현재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냉철한 사업가만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남방 정책에 의해 가장 주목을 받은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 같다. 그러한 주목이 '경제적'인 부분만이라는 점 역시 그렇다. 경제외교만으로 풀리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외교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고, 한국 기업이 핵심 행위자로 역할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정책의 방향은 문화, 정치, 경제 활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부분을 기업의 눈으로 이야기 하면 CSR을 떠올릴 수 있고, 마지막 시사점 역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닌 지역의 실업, 교육, 위생을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 투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중요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무조건 퍼주라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찾고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할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 되면서 한국 ODA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직업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과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자경제외교국으로서 베트남을 대할 뿐만 아니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할 때다.

참고문헌

- 김희숙·유민지·김다혜·김현경·양영란·전제성. 2020. “코로나19에 맞선 동남아의 대응: 초기 대처과정의 잠정적 함의.” 전동연 이슈페이퍼 No. 1.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이계선. 2020.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 베트남 한류 심층분석”. 『한류나우』 Vol. 3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Ohara, H. Experience and review of SARS control in Vietnam and China. *Trop. Med. Health* 2004, 32, 235-240.
- Vuong, Q.-H. The (ir)rational consideration of the cost of science in transition economies. *Nat. Hum. Behav.* 2018, 2, 5. [Google Scholar] [CrossRef] [PubMed]
- Vuong, Q.H. Be rich or don't be sick: Estimating Vietnamese patients' risk of falling into destitution. *SpringerPlus* 2015, 4, 529. [Google Scholar] [CrossRef] [PubMed]
- Vuong, Q.-H.; Ho, T.-M.; Nguyen, H.-K.; Vuong, T.-T. Healthcare consumers' sensitivity to costs: A reflection on behavioural economics from an emerging market. *Palgrave Commun.* 2018, 4, 70. [Google Scholar] [CrossRef]